

투데이 칼럼

코로나19가 낸 숙제

코로나19 발생 석 달째, 세계적 대유행 상황이 되면서 교육, 위생, 보건, 사회문제, 경제 등 모든 기능이 멈췄다. 그러나 추가 확진자 수가 지난 19일 중앙방역대책본부 발표 기준 61일 만에 처음으로 한 자릿수를 찍고 현재까지도 10명대를 유지하면서 상황 호전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지만 5월 5일까지는 완화된 형태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해야 한다. 일부 집단 시설의 운영제한이 풀리는 만큼 세심한 방역수칙도 준수해야 한다. 방심하는 순간 언제든 집단 확산의 우려가 있는 코로나19의 특성 때문이다. 때문에 온라인 개학을 한 초·중·고등학교들에 대한 등교 개학은 가장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결정이 내려진 상태다. 대학에서는 1학기 내내 비대면 강의를 결정할 곳도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너, 나할 것 없이 모두가 그로기(Groggy) 상태로 내몰린 상황. 문제는 '무더짐'에 있다. 사태가 장기화되고 확진자 발생이 정체를 돌아서면서 어쩔 수 없이 긴장감이 풀어지고 그 틈새로 '살마'하는 안일함이 싹트고 있기 때문이다. 생활방역체계로의 전환이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보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어느 때보다도 각자의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코로나19 예방과 극복이 필요한 것이다. 지자체가 풀어야 할 숙제도 만만치 않다.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불거지고 있는 분야 별 문제점들을 해결해야 하는 것. 다행히 무주에서는 지금까지 단 한 명의 확진자도 발생하지 않았지만 끝까지 '확진자 0'을 지키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경기침체 극복 역시 꼭 풀어야 할 숙제다.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



황인홍

무주군수

상화되면서 외출과 소비는 줄었고 그로 인해 지역경기는 위축됐다. 더욱이 무주는 '대한민국 관광 1번지'를 자처하던 곳이다. 2016 경제총조사 결과 무주군 관내 사업체 2,278개 중 28%(648개)가 관광과 연계된 '숙박 및 음식점업'인 현실에서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자체가 역병인 셈이다. 관광지 주변 식당들과 펜션, 콘도를 비롯해 이들과 연계된 관내 전체 일반 상점들까지도 그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이다. 어떻게 극복해야 할 것인가? 코로나19 발생을 경계하면서 숨겨져 있던 지역경제를 어떻게든 일으켜야 모두가 산다. 민생경제대책반(1개 반 5명)을 구성한 우리 군은 무주사랑상품권의 구매 한도를 기존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늘리고 2만 4천여 군민 전체에게 10만 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24억 2천여만 원)하는 것으로 우선 수혈을 시작했다. 맞물려 10여억 원을 투입해 소상공인 특별 지원사업도 추진한다.

소상공인들의 공공요금과 사회보험료, 카드수수료, 온라인마케팅을 지원하며 착한임대인 운동의 일환으로 공유재산에 대한 사용자 감면 서비스도 제공한다. 연매출(19년) 2억 원 이하의 관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요금 지원 규모는 1월부

터 3월까지의 전기와 가스, 수도 등 제세공과금 60만 원(월 20만 원)이다. 사회보험료는 정부 두투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며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사업주 부담금만 지급한다. 카드수수료는 연매출 3억 원 이하의 관내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것으로 전년도 카드매출액의 0.8%, 최대 50만 원을 지원한다.

소상공인 온라인마케팅 지원은 키워드 및 배너광고, 소셜마케팅 활동에 소요된 비용(업체당 50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우리 군에 2년 이상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해당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착한임대인 운동 확산을 위해 올해 1월 이후 임대료 5% 이상 인하한 건물주에게 최대 5천만 원 용자 및 이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전통시장 장육과 무주IC 만남의 광장 내 입점 점포 108곳에 대한 사용자도 감면 지원할 예정이다. 여행, 관광숙박, 관광객이용시설, 유원시설, 관광 편의시설의 홍보·마케팅을 지원하며 80석 이상 좌석 일반 음식점의 입식 시설개선비도 지원한다. 이외 소상공인 특별보증 지원 대상 및 규모를 확대하고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도 지원할 계획이다.

재난기본소득은 신속성에 역점을 두고 최대한 빨리 지급을 마무리할

예정으로 나이와 소득, 직업에 상관 없이 무주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군민이면 누구에게나 1인당 10만 원의 무주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이를 지급받은 군민에게는 3개월 안에 사용하도록 권고해 재난기본소득이 제 기능을 발휘하도록 할 계획이다. 어려운 때 군민의 기본생계를 뒷받침하고 이를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게 하려는 취지인 것이다. 재난기본소득이 가정경제의 씨앗이자 지역경제의 마중물이 될 거로 확신한다. 결국은 군인이 지역경제를 살리는 주체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개인위생·방역수칙 실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에 이어 다양한 경제정책 추진에도 모두의 관심과 동참이 필요한 이유다.

위세가 한풀 꺾였다고는 해도 코로나19가 그간 헤집어 놓은 현실이 너무 답답해 당장 한 발짝 내딛기가 사실 쉽지 않다. 한숨이 너무 깊어 과연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의 구심마저 든다. 하지만 '본립도생(本立道生)'이라고 기본이 서면 자연스럽게 길은 생기게 돼 있다. 무(無)에서 유(有)를 만들어가며 그동안 잘 해왔지 않은가!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은 코로나19 속에서 우리는 슬한 모범 사례들을 남기며 의연하게 대처해 왔고 그 결과와 이제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당장은 힘들더라도 일상은 찾아올 것이다. 학교는 곧 아이들 웃음소리로 넘쳐날 것이고 거리는 다시 사람들로 북적일 것이다. 그때까지 개인은 개인대로, 지자체는 지자체대로, 국가는 국가대로 기본을 지키며 가변 되는 것이다. 긴장의 고삐를 늦추지 말고 따로, 또 같이 그렇게 가면 되는 것이다. 세상살이 고됐어도 웃음이 있고 희망이 꿈틀대던 그때를 그리면서 말이다.

사설

코로나 진정국면에도 계속 시민정신 발휘해야

코로나가 이제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다. 새로운 확진 환자의 수도 신규 사망자 수도 눈에 띄게 줄어든 것이다. 이 정도라면 의료진들이 누적되는 피로감이 없어 대처해줄리라는 믿음이다. 바로 그래서 서일 것이다. 불교의 법회와 카톨릭의 미사가 2개월만에 재개되었다. 이같은 변화는 다른 모든 종교계도 현장 예배가 가까워졌음을 의미한다. 그동안 시민들이 방역강화에 협조한 덕분이다.

그렇다고 예전처럼 일상이 회복되었다고 판단하기에는 이르다. 아직 안심할 때는 아니라는 이야기다. 이런 때일수록 시민정신을 발휘해야 한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 퇴치 굳기기로 들어가야 한다.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지만 방역당국이 시민에게 호소하는 것은 사회적 거리두기다. 계속 지적하고 있거니와 이웃 나라 일본의 경우를 반면교사의 사례로 보아야 한다. 일본은 그동안 사회적 거리두기를 등한히 했다. 그 결과 사태가 심각하다. 그래서 누적 확진자 수도 사망자수도 우리 한국의 그것들 넘어버린지 오래 되었다. 유럽의 이탈리아와 스페인과 프

랑스와 독일도 반면 교사의 사례로 보아야 한다. 그 나라의 국민들은 그동안 방역 당국과 의료진에 협조하는 정신이 부족했다. 그래서 지금 아우성을 그치지 않고 있다. 다들 잘 알고 있는 바 미국의 사태는 더욱 심각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처음에 코로나를 일반 독감 정도로 관철을 것처럼 말했었다. 그러나 현재 미국은 지구상에서 가장 나쁜 본보기가 되어버렸다.

불교의 법회와 카톨릭의 미사가 재개되었으므로 다들 예전과같은 모습으로 돌아가기 위해 기지개를 켜 터이다. 그래도 예전과 같은 일상이 회복된 것은 아니다. 이제 무엇을 해도 된다는 식으로 판단해선 안된다. 우리 정부의 경우도 그렇다. 다른 방역 시도와 비교해 청정 지역이라고 해도 조심하는 정신태도를 아주 놓아버려서는 안된다. 방역 당국이 호소하는 대로 해야 한다. 손을 의식적으로 지우시고, 외출시에는 마스크를 끼고, 사람과 사람 사이 2미터 이상의 거리두기를 실천해야 한다. 그렇게 해서 코로나 제로의 마침표를 확실히 찍어야 한다.

발전 현안 꾸준히 추진하는 저력을

지역 발전은 도민 모두의 바람이다. 전북도는 뜻을 이루지 못한 발전 현안에 주목해야겠다. 턱걸이를 하다가 주요 현안들을 쟁쟁하게 한다는 주문이다. 이제 코로나 사태도 진정 국면이다. 전북도는 코로나 확산 방지와 관련하여 전국적인 모범 사례를 꾸준히 보여주었다. 것처럼 지역 발전 분야에서도 성공을 거두어야 한다. 그래서 앞으로 지역 현안이 꾸준히 추진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전북 발전은 도민 모두의 소망이다.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너와 내가 따로 없다. 다들 선공후사의 정신 태도를 보여야 한다. 그게 없다면 지역 발전은 요원하다. 다시 말하거니와 지역 발전은 전북도만 이끌어 가는 게 아니다. 지역 경제 살리기를 말할 때마다 요구하는 것이 있다. 우리 전북의 현안에 정부 부처가 눈길을 돌리도록 해야겠다. 전북의 현안이 다른 지자체의 그것에 밀려 후순위가 되는 것은 안 될 일이다. 여기 다시 요구하거니와 본보기가

지난날 여러 번 말한 게 있다. 군산 현대조선소 재가동이 속히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군산의 영세 기업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나날이라서 말이다. 그러나 현대중공업이 요지부동이라서 조선소 가동이 어렵다면 미련을 속히 접어야겠다. 이제 전기자동차 생산을 서둘러야 한다. 내명년까지 미투리 말고 작업을 앞당기자는 것이다. 전기차 생산이 군산형 일자리로 정착했다면 지체없이 밀고 나가야 한다.

발전 현안에 추진 속도를 내야 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우리 지역은 일자리가 부족하다. 그래서 실업자들이 다른 광역 시도보다 많다. 그래서 전북 발전을 이끌고 있는 이들에게 할 말이 있다. 이제 너무 암전해서는 안된다. 현안을 행하기 위해 저력을 보여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발전을 도모한다고 할 수가 없다. 전북도는 발전 현안 추진을 위해 힘차게 달리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하는 바이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독자제언

전국 보이스포싱 주의보 발령

주변에서 보이스포싱을 당했거나 당할 뻔한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누가 요새 보이스포싱에 당하느냐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보이스포싱을 당할 뻔하거나 당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요. 최근 보이스포싱의 수법이 고도화되고 다양한 전기통신매체를 통한 피싱 신 유형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택배분자나 청소기결제승인 문자,

악성 앱 다운로드, 지인사칭 문화상품권 구매유도 등 sms를 통한 메시지 피싱이 대표적인 피싱 신 유형입니다. 특히 기관사칭형은 대부분의 국민들이 인지하고 있지만 많이 당하는 유형 중 하나인데요 자신의 계좌가 사기범죄에 이용되었으니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는 경찰 및 검사의 기관사칭 형으로 확인이 필 요할 땐 인터넷으로 대표번호를 확

인하고 전화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이러한 피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보이스포싱 예방 및 대처 방법을 익혀두고 '후후'와 같은 전화번호 출처 알림 앱으로 피싱 의심이 되는 전화는 받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계좌 비밀번호를 유출 당했거나 자금을 송금한 후라면 빠르게 본인의 거래은행에 연락하여 계좌지급 정지를 신청해야 합니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관한 보이스포싱 사례가 있는데요. 코로나 관련 의심스런 대출문자를 받았을 때는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에 따라 피해액과 피해사례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피싱의 새로운 유형과 사례를 알리고 항상 조심하는 자세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황정운 남원경찰서 지능팀 순경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